

활력 상실한 2003 프랑스 출판, 자존심 지킨 프랑스 만화 베데

France

글 | 임준서

프랑스의 도서 전문잡지 <리브르 엡도>에 따르면, 2003년 베스트셀러 순위 50위에 들었던 책들의 총 판매 부수가 전년도인 2002년에 비해, 200만 부 줄어든 1,100만 부에 그쳤다고 한다. 이 통계 수치는 프랑스 출판계가 '불황의 늪'에 빠지지지는 않았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예년의 활력을 많이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프랑스 출판계의 흐름을 그려본다면 아동도서, 실용도서 및 만화는 비교적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반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해 오던 픽션 부분의 대표적 장르인 소설이 제자리걸음 내지는 약간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시사도서의 강세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스캔들이나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소재로 한, 이른바 '시사 도서'들이 강세를 보이며, 출판계의 효자 종목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단행본과 시사잡지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 이들 '시사 도서'는 서점가에 나와 반짝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은 후 곧 사라지는, '수명이 매우 짧은 책'들이다. 현지 언론과 출판계에서는 이런 부류의 책들을 '충격적이고 빠른 성공을 거두는 책 livres choc et a succes rapide' 이라 부르며, 이런 부류의 책들로 인해 '출판 제작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단축돼 출판계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지난해 가을 피야르 출판사에서 나온 나딘 트랭티냥의 《내 딸, 마리 Ma fille, Marie》와 미셀 라퐁 출판사에서 나온 뱅상 웅베르의 《나는 죽을 권리를 요구합니다. Je vous demande le droit de mourir》가 이런 시사 도사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것은 연인과 다투다 머리를 다쳐 숨진 딸에 대한 사랑을 편지 형식을 빌어 이야기하는 책이며, 둘째 것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 인간이 돼버린 20대 청년의 안락사 문제를 다룬 책이다.

마리 트랭티냥은 1960년대 프랑스 영화 <남과 여>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장 루이 트랭티냥과 여류 TV 감독 나딘 트랭티냥의 딸로, TV와 연극에서 활동해 온 중견 여배우였다. 그녀는 지난 여름

반가운 일은 2003년 1월에 열렸던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에서 우리의 만화가 '한국 만화 특별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렸다는 사실이다. 이어 지난 여름에는 처음으로 '도깨비'란 이름의 한국만화 전문잡지가 창간되었고, 이 잡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프랑스에 한국만화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 한국 작가들의 만화 시리즈가 소프트 문고판 형태로 출간돼, '동양식 만화'를 좋아하는 프랑스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리투아니아의 한 호텔에서 연인이었던 유명 록가수 베르트랑 카탕과 다툼을 벌이다 머리를 다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이 사건은 트랜티냥 집안을 아끼는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두 번째 책의 주인공이자 공동저자로 되어 있는 뱅상 웅베르는 2년여 동안의 투병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해지자 2002년 말 대통령에게 ‘죽을 권리’를 달라는 청원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프랑스의 헌행법에 따라 그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자식의 절망과 고통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뱅상의 어머니 마리 웅베르는 사랑하는 자식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며 사법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락사를 감행하게 된다. 이후 이 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지난해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해묵은 두 주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안락사의 합법화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던 것이다. 이를 놓치지 않고 두 사건을 소재로 발 빠르게 출판이 기획되었고, 이를 기획했던 출판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두 책은 짧은 기간 내에 논픽션 부문 3위와 4위에 올라 각각 20만 부 이상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치 도서의 몰락

어느 나라 정치인들보다 저작활동이 활발한 프랑스 정치인들에게 2003년은 우울한 한 해였다. 지난해에도 많은 정치인들의 저서와 전기가 출간되었지만, 2002년 대선과 총선 이후로 큰 정치적 이슈가 없어서인지 예년만큼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던 것 같다. 취임 1년을 회고하는 현현 총리 장 피

에르 라파랭의 책, 《5 월의 프랑스》가 그라세에서, 미테랑 대통령 시절 최연소 총리를 역임하고 전 조스팽 정부에서 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로랑 파비우스가 2002년 사회당의 총선 패배 이후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한 반성과 일상의 사색을 담은 책 《길을 거닐며 새롭게 *Cela commence par une balade*》가 플롱출판사에서 출간되었지만, 5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만 현직 교육부 장관 뤽 페리의 《학교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Lettre a tous ceux qui aiment l'ecole*》(오딜자킵 출판사, 2003년)

와 전직 교육부 장관, 클로드 알레그르(1997~2000)의 《모두를 위한 과학상식 *Un peu de science pour tout le monde*》(파이야르 출판사, 2003년)만이 47위, 50위를 겨우 차지했다. 앞의 책은 뤽 페리가 주도하는 교육개혁 정책을 설명하는 소책자이고, 뒤의 것은 일반 대중에게 위대한 과학발명의 탄생배경을 쉽게 설명하는 과학 교양서라 할 수 있겠다.

프랑스 만화시장의 꾸준한 성장

해마다 전체 도서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프랑스 만화 ‘베데 *Bandes Dessinees*’는 주목해 볼 만한 분야이다. 도서시장에서 만화의 비중은 13퍼센트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팔리는 책 열 권 중 하나는 만화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 만큼 도서시장에서 만화의 비중은 매우 높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만화는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참고

1
《전체 50위 순위 안에서 1위를 기록한 《해리포터》(111만 부)를 열외로 한다면, 2위는 다름 아닌 프랑스 만화의 자존심 《아스테릭스》였다. 2003년 8월, 알베르 르네 출판사에서 출시된 우데르조와 고시니의 새 앨범, 정확히 말해 1993년 증보판인 《아스테릭스와 골르와의 귀환》의 판매 부수는 무려 86만 5,900부를 돌파했다.

2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 망가는 특히 어린이 독자층을 사로잡으며 프랑스 만화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각 서점의 만화 코너에는 일본 망가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이 글을 쓴 임준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파리 7대학교에서 현대문학부 학사, 언어학과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도불해 현재 프랑스 마르리발레 대학교 IGM/LADL 자연어처리 연구소 연구원, 프랑스 루앙대학교 한국학 객원교수로 있으며 동아일보에 칼럼 <파리에서>를 연재하고 있다.

France

1
2



로 지난 8년간 만화분야의 판매실적은 한번도 후퇴한 적이 없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소비가 정체되는 경기침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만화 독자층이 더욱 어려워지고 여성 독자층이 새로 유입돼 그만큼 만화 독자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전체 50위 순위 안에서 1위를 기록한 <헤리포터>(111만 부)를 열외로 한다면, 2위는 다음 해인 프랑스 만화의 자존심 <아스테릭스>였다. 2003년 8월, 알베르 르네 출판사에서 출시된 우데르조와 고시니의 새 앨범, 정확히 말해 1993년 증보판인 <아스테릭스와 골르와의 귀환>의 판매부수는 무려 86만5,900부를 돌파했다. 그러나 지난해 만화분야의 실질적인 황태자는 웹Zep의 '띠페프Titeuf 시리즈'라 해야 옳을 것이다. <띠페프>는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총 9권의 시리즈와 1권의 별책이 글레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지난해 9월 출간된 <프레오의 법칙>이 26만 부로 만화부분 4위에 오른 것을 비롯하여 모두 20위 안에 들었다. 이들을 다 합치면 총 159만3,000부를 판매한 셈이 된다. 꼬마 띠페프는 프랑스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코믹하게 그려내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땡땡과 아스테릭스의 맥을 잇는 프랑스의 '베데'가 된 것이다.

프랑스 만화시장은 일반도서를 출간하는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 글레나Glenat, 다르고Dargaud, 뒤퓌Dupuis 등 주요 만화전문 출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주제별로 보면, SF 및 판타지 만화와 풍자만화가 각각 3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고, 뒤를 이어 추리만화와 역사모험만화, 유아용 만화의 순서대로 몫이 분배돼 있다.

프랑스내 외국만화시장

마지막으로 프랑스 내의 외국만화 점유율은 일본 망가가 30퍼센트, 미국 '코믹스'가 1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한 일본 망가는 특히 어린이 독자층을 사로잡으며 프랑스 만화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각 서점의 만화 코너에는 일본 망가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반가운 일은 2003년 1월에 열렸던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에서 우리의 '만화'가 '한국 만화 특별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렸다는 사실이다. 이어 지난 여름에는 처음으로 '도깨비Tokebi'란 이름의 한국만화 전문잡지(편집책임자 : 크리스토프 르메르)가 창간되었고, 이 잡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프랑스에 한국만화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몇몇 젊은 한국 작가들의 만화 시리즈가 소프트 문고판 형태로 출간돼, '동양식 만화'를 좋아하는 프랑스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아직 일반 서점에 일본 망가처럼 독립된 코너를 가질 정도는 아니지만, 서점 직원들과 만화 독자들이 '만화manwha'라는 한국식 명칭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만화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프랑스에 소개되는 만화의 수준이나 질을 논하기 전에 우선 한국이 '만화의 나라'라는 것을 인지도시킬 수 있는 것만 해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